

콜금리 또 오르나... 변동금리 대출자 '좌불안석'

한은총재 '매파' 발언...미국 금리 인상도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데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로 급변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 좌불안석이다.

한국은행의 90% 가량이 연동된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콜금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급자리론 금리를 내리면서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 불안·초조= 18일 현재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자유계시판에는 금리인상을 성토했는 소

변동금리의 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새벽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신히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금리가 자주 인상된다고 하니 소화가 안되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다른 네티즌도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사고 싶은 것 참아가며 대출이자 내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하려다가 서민들 다 죽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한 고객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

는 생각을 하면 어렵사리 마련한 집을 팔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변동금리대출 상품을 이용중인 고객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담하는 고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요인 수두룩=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이같이 불안해 하는 것은 최근 국내에서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어 때문이다. 우선 지난 4월 부임한 이성태 한은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을 시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은행 창립 56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기 동향에 유의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한국은

행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물가만 보아 통화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전체 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6월에 이어 7월에 다시 한번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가설까지 돌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9일에 금리를 평상시 금리 인상폭의 배인 0.50%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8월8일에 다시 인상해 연내 미국의 정책금리가 연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 및 기타 국가들까지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의 콜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정금리 상품 유혹에 고민=향

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급자리론(모기지론)은 금리를 되레 인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10년만기 상품이 6.3%, 15년만기 상품은 6.4%, 20년만기 상품은 6.5%, 30년만기 상품은 6.55%로 각각 0.3% 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시중은행들의 4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의 평균금리는 연 5.42%로 공사의 모기지론과는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사의 모기지론 금리는 다소 높지만 고정금리 상품이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그만큼 리스크를 없애준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서서히 자제하면서 금리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고정금리 상품의 매력력을 높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PB팀장은 "금리차가 1% 포인트 이내인 상황에서는 기존 은행 대출자들도 모기지론 전환을 고려할만 하다"며 "다만 은행 대출자들은 해당 은행을 통해 여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대출을 유지하려는 심리로 적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위기의 현대자동차

러시아·중국·인도 등 해외 시장서 판매 급감...외국 업체에 선두 내줘

현대자동차가 올들어 급격한 원화절상과 비자금 수사 여파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해외 주력시장에서 도요타 등 외국 업체에게 속속 선두 자리를 내주고 있어 시장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그동안 수입차 시장 1위를 고수해온 러시아에서 지난 5월 7천740대를 판매해 4월 7천940대보다 2.5% 감소했다.

현대차의 이같은 실적은 실적은 지난 3월 8천821대를 기록했다가 4월에 10.0%가 감소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며, 작년 동월(9천239대)보다도 16.2% 줄어든 수준이다.

현대차는 지난 3월 포드의 8천868대에 이어 2위로 밀려난 데 이어 4월에는 도요타, 포드에 이어 3위로 떨어졌고, 5월에도 도요타(9천642대)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판매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현대차는 올해 1월과 2월에는 러시아에서 각각 6천806대와 6천303대를 판매해 도요타(1월 4천261대, 2월 4천562대)와 포드

(1월 2천32대, 2월 5천50대)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판매 1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들어 5개월간 러시아 시장의 누적 판매대수가 3만7천610대로, 도요타(3만5천673대)나 포드(3만547대)보다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적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향후 누적 판매대수에서도 전체가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들어 4월까지 53만대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고 수입차 판매는 55.6%나 늘어나는 등 급성장하고 있어 도요타와 폴크스바겐, 닛산 등이 경쟁적으로 공장 신설이나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러시아 외에도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1-4월 판매량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5위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 인도시장에서도 3위를 차지해 작년 동기보다 1단계 내려앉는 등 신승 브릭스(Brics)시장에서의 위상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해외건설 수주 '활황' 올 벌써 76억弗 돌파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개월도 안돼 작년 한해 수주액의 70%를 돌파,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 16일 현재 76억4천900만달러를 기록, 작년 동기(59억3천500만달러)보다 29%나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한해 수주액 108억6천만달러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써부터 연말 목표치(130억달러)의 초과달성을 기대케 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가 41억6천600만달러로 작년보다 3% 줄었으나 아시아는 21억9천만달러로 2.58배 증가했고 아프리카(11억4천만달러), 유럽(13억3천만달러)의 증가율도 각각 117%, 72%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20억1

천만달러, 쿠웨이트 13억1천만달러, 나이지리아 10억6천만달러, 베트남 9억3천만달러, 필리핀 5억6천만달러 순이며 공중분포는 토목 10억2천만달러, 건축 13억4천만달러, 산업설비 49억5천만달러였다.

국내업체에서는 대우건설이 12억7천만달러를 수주, 최고 기록을 썼고 현대중공업(12억4천만달러), 삼성엔지니어링(9억1천만달러), 두산중공업(8억5천만달러), 현대건설(6억4천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업체가 늘어나 해외건설 수주가 작년 이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등 신흥국가에서 국내업체의 진출 요청이 잇따라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세계 와인 맛 보세요 광주신세계는 지하1층 와인 전문숍에서 독일, 미국, 칠레,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별 대표 와인 기획전을 열고 20~60% 할인 판매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1~2만원대 3~3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와인셀러(와인 보관용 냉장고) 등 다양한 경품을 준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산업 신훈 대표 금탑산업훈장

해외건설 수주확대 공로

금호산업 신훈 대표이사 부회장과 삼대양개발의 정장훈 대표이사가 해외건설 수주확대와 건설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환경기전 김경호 대표와 이화공영 최상규 대표는 은탑산업훈장, 송기덕 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동탑산업훈장, 김동길 광성산업개발 대표·황한석 삼중엔지니어링 대표는 철탑산업훈장의 영예를 각각 안았다.

정부는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산



<신훈 대표>

업훈장 9명, 산업포장 4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정부 포상 28명과 건교부장관 표창 100명 등 건설관련 각 분야에서 공헌한 128명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포상은 19일 오전 11시 건설회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권홍사 건단련 회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LG카드 매각작업 다시 '시동'

주내에 채권단 회의 공개매수 여부 논의

'공개매수' 압초에 걸려 중단됐던 LG카드 매각작업에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LG카드 매각 중간사인 금융은행 금융매 부총재는 17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이번 주 중 채권단회의를 열어 공개매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마냥 손놓고 기다릴 경우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국책은행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이 현재 LG카드 매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공개매수 예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에 대비한 사전 협의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재는 "산은은 채권단회의에서 두 가지 매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소재지분 채권단의 동의 없이 매각제한을 해제한 후 시장에서 스스로 주식을 팔 기회를 준 뒤 남아있는 큰 지분을 가진 채권단끼리 모여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방법과 현재 진행 중인 경쟁입찰 절차에 공개매수와 접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출중소 환변동 보험료 오늘부터 지원

한국무역협회는 당초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예지 지원을 위한 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을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 기업도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였던 것을 2천만 달러 이하로 확대했고, 1개사당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무렵은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위

해 올해 총 10억원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 업체는 19일부터 수출실적 증명과 무역협회 회원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수출보험공사 본사 및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진기공	설계기사/전자회로설계 사원	고졸/경력1년	2400~2600	06/20	062-953-1642
☐지에드컴	편집디자인사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6/20	011-638-5654
☐텔레서비스	하나로텔레콤 광주고객센터 인바운드상담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21	02-2163-4125
☐연호전자	환경관리업무/터미널 공정품질관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1	062-952-0772
☐국성종합건설	사무관리/문서관리/경리/회계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2	062-524-4224
☐케이시스	정규직 TM사원/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22	062-236-1688
☐킨스종합식품	경리직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22	062-574-2525
☐광주장애인재활협회	[국비지원]2006년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과정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	062-368-6676
☐밀리시스	연구원 (전기,전파,통신 전공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972-0224
☐한국씨티은행	[광주전략영업센터]여신 전문 영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6	062-382-2815
☐성진케미칼	2006년도 총무부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6	062-943-811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원재료·중간재 물가 작년대비 7.5% 급등

원재료·중간재 물가가 1년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06년 5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재료·중간재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7.5% 급등했다. 이는 2004

년 12월의 8.2% 급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재료·중간재 가격 상승률은 3월에 작년동기 대비 3.9% 오른 이후 4월에 4.2%를 기록하는 등 점차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3월에 0.3%를 기록한 이후 4월에 1.8%, 5월에 1.8%로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경기 회복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한은의 예측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85회)						팝콘복권 (제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등위	당첨금액	당첨번호	당첨금액
01 02 04 08 19 38	14					1등	10억	3조	414654
등 위						2등	5억원	3조	414653
등 위						3등	3조	414655	
1등	6개 숫자 일치	3,522,485,800	3등	1천만원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등	1백만원	각조	20240
2등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일치	51,801,262	5등	1만원	각조	632			
3등	5개 숫자 일치	1,434,237	6등	2만원	각조	68			
4등	4개 숫자 일치	53,422	7등	1천원	각조	84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각조	3			